연예가 올해도 '11월 괴담'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제2850호 www.metroseoul.co.kr

스위스 잡으러 온 손흥민

한파가 만든 '비경' 내일까지 춥다 올가을 들어 서울 영하의 날씨를 보인 11일 한라산 정상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마다 상고대(서리꽃)가 활짝 피어나 등반객들을 반기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3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수출할수록 적자" 제조업 비명

Issue & View

원화강세 업종별 영향은

/김태균기자 ksg@metroseoul.co.kr

전자·석유화학·섬유 등 가격경쟁력 상실 초비상
한전·CJ제일제당 등 원재료 수입업체는 표정관리
삼성전자·현대자는 환율변동 영향 거의 안 받아

"평소 통화 다변화 등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환율 변동 시) 그때그때 대응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수출 면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 있지만 회사 자원의 외화자입금이 상당해 오히려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두산인프라코어

"설탕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한 번 인하하는 등 원화 강세로 인한 원자재가 하락 효과가 있었다" /CJ제일제당

최근 1달러당 원화가 1062원으로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로 '3인3색'을 나타내고 있다.

◆ **수출주도형 제조업**

수출주도형 제조 사업자는 적자구조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전자·섬유·석유화학 분야 등이 포함된다.

전경련 조사 결과 국내 제조업의 원·달러 환율의 손익 분기점은 1066.4원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에서 원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원·달러 환율은 현 수준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최근 원화 강세는 엔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나타나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원재료 수입업체**

원화 강세로 인해 웃는 업종이 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CJ제일제당 등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종이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은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반가운 상황이다. 식품업계의 경우 식자재의 많은 부분을 수입하고, 대부분이 내수위주여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곡물의 경우 기존 상승분이 작아서 요금 인하를 늦추고 있지만 설탕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한 번 인하하는 등 원화 강세로 인한 원자재가 하락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국내 업계 중 제조업과 수출주도형 기업이면서도 환율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삼성전자는 원화 강세로 올해 3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체 이익 규모가 워낙 크고 원재료와 장비 수입금액 가운데 달러 결제 비중이 높아 전체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삼성 관계자는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해외 생산 확대 및 부품 현지 조달로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고 있다.

김영태 현대차 재경사업부장은 지난 3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환율은 전년 대비 1.8% 하락한 1070원이 될 것"이라며 "해외 생산을 늘려 환율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 바닥이라는 ... 11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대입 전시 ...'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세일의 덫'에 걸린 화장품 업체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경제부 기자>

"어차피 세일 할거면 처음부터 그 가격으로 팔지. 괜히 처음 산 사람만 속상하게…"

한 화장품 광고에서 지적하듯 최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할인 경쟁은 치열하다. 업체들은 정기 할인·멤버십 세일 등 이름표만 바꿔가며 할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또 세일을 하지 않으면 '1+1 행사' 등 판촉에 사실상 반값 할인은 일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미샤 등 주요 5개 화장품 업체의 연간 할인 일수는 2011년 107일에서 지난해 240일, 올해는 9월까지 252일에 달했다. 할인폭도 10~20%에서 최근 들어서는 50%가 일반화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가격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연중 세일을 하는 걸 보면 가격 거품이 얼마나 심할까 의심이 든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 값을 주고 사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애초에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세일을 통해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신과 '제 살 깎아먹기'식의 출혈 경쟁은 결국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거침없이 성장하던 브랜드숍들이 저조한 성장을 보이며 정체 위기를 맞은 것.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 저가의 화장품 업계가 오늘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간단하다.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원전 이어 무기 너마저!

전차·헬기 등 34개 부품·원자재 납품업체 3년간 시험성적서 125건 위·변조

군수품 납품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684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34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125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차, 자주포, 헬기 등 무기나 군용 장비에 쓰이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23개 업체 103건에 달했다.

A업체는 구난전차 부품인 브래킷 등을 주 계약업체에 납품하면서 무려 5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군납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
23개업체 103건
11개업체 22건

◆ 수리온에도 불량부품 출격

B업체는 K-9 자주포 등에 쓰이는 절연판 등을 납품하면서 9건의 시험성적서를, C업체는 수리온 기동헬기에 쓰이는 와이퍼조립체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2건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변조했다.

K55A1 자주포, K-1·K-2 전차, M48 전차, K-10 탄약운반차 등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주 계약업체에 공급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체도 있었다.

주 계약업체로 식품이나 피복류 등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는 11개 업체 22건이었다.

최광근 기품원장은 "납품업체들의 안일한 태도는 군수품의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장비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명) mk.m@metroseoul.co.kr

표정 엇갈린 여야 황우여(오른쪽)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비공개 회담을 열어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통과 등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뉴시스

예산안 지각처리 올해도?

민주 의사일정 보이콧 국회 결산심사 올스톱

특검 충돌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기국회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 민주 '청문회만 참여'키로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뒤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결국 국회의 결산심사도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나흘간 결산소위를 가동해 2012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측의 심사 거부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결산심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위는 "의사 일정이 더 늦어지면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은 고사하고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도 내비쳐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명)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1일 윤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검찰관과 윤씨의 경매 방해 등 비리 혐의에 관여한 전직 기업 임원 등 3명은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기자명)

뉴스 & 뉴스

오전엔 울음 오후엔 스마일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논란으로 소동이 일었다. /뉴시스

"김진태 장남 KOICA 탈락 건강 아닌 성적탓"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남이 군 대체복무를 위해 지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서 최종 탈락한 이유가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면접 성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KOICA에 문의한 결과 신체검사와 상관없이 경력이나 전공이 지원 분야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시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1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58개 철도역 중 폐쇄형 흡연실 동대구역뿐

● 전국 대부분 철도역에 흡연실이 없어 승객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전국 58개 주요 철도역 가운데 칸막이로 막은 폐쇄형 흡연실이 마련된 곳은 동대구역(면적 18㎡) 1곳뿐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철도역 승강장이나 역사 내부 전 구역이 금연 지역으로, 각 역에서는 역 광장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자명)

윤석열 중징계 청구…조영곤은 사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종결,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안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또 수사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부당 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지검장은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겠다"고 사퇴 의사를 전했다. /(기자명)

목조 가옥이 산산조각 나는 등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 중부 사마르 지역이 11일 초토화된 모습이다. /AP·연합뉴스

필리핀 한인 19명 연락두절

정부, 내일 구조대 급파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1만여 명이 숨진 필리핀 레이테섬에서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30여 명 가운데 13명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11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타클로반 등 레이테섬의 태풍 피해지역 내 한국인 거주민을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근 사마르 지역에도 한국인 여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국인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한국대사관은 현지에 영사와 행정원을 파견한 데 이어 대사관 직원 1명을 추가로 급파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13일께 타클로반 피해 지역에 구조대를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지 숙박시설과 교통편을 확보하기 위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조선미기자

'9900원 항공권'의 진실

유류할증료 제외한 요금으로 허위광고 현혹… 실제 요금은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가 승객이 실제로 내는 총 운임이 아닌 유류할증료 등을 제외한 대폭 축소된 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총액운임 자율 표시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액운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제할 총액이 처음 안내받은 가격보다 2배가 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사진)은 인천~홍콩 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로 편도 항공권을 최저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예상 총액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14만3000원이다.

티웨이항공 역시 김포~제주 노선 얼리버드 항공권 가격을 9900원부터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결제하는 금액은 2만6000원부터 시작된다.

이외 다른 항공사들도 총액운임을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 적어놓거나 아예 총액운임을 밝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싼 금액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차량용 블랙박스 68% 'KS기준 미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의 68%가 KS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시장점유율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방촬영 전용(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 21개 업체 31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번호판 식별성, 시야각 등 주요 성능이 KS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능 확인 결과 DR380-HD(미티소프트), AC1(코원시스템), FX500 마하(팅크웨어), ITB-100HD SP(아이트로닉스), AW1(코원시스템), TGB-F1(삼보컴퓨터) 등 6개 제품은 번호판 식별성과 밝기 적응성 등 영상 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적으며 내환경성(진동·충격·고온 작동) 측면에서 이상이 없었다.

반면에 가격이 약 28만원으로 가장 비싼 '유알온텍'의 LK-7900HD ACE 제품은 진동시험 실시 결과 거치대가 파손돼 KS 기준에 미달했다. 또 메모리 사용량(82MB/분)은 평균치(66.6MB/분)보다 많았지만 GPS 고온차단 기능 등 부가 기능이 조합돼 있고, 주·야간 번호판 식별성과 시야각, 초당 저장 화면 수 등의 측면에서는 우수했다. /장윤희기자

'키즈카페' 13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지방청은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 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 이상의 대형 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 취급 요령에 대한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 목적으로 보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다.

특히 어들 적발 업체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환산량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하던 중 적발돼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 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키즈카페에 대해 서울·경기 등 전국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하균기자 [illegible]

부경대생 '수돗물 사랑 UCC 공모전' 최우수

부경대학교는 이 대학 학생들이 최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열린 '부산 수돗물 사랑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상자는 시각디자인학과 김남준(4학년),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임지섭(2학년), 공업화학과 윤형선(3학년), 전자공학과 권다솜(2학년) 등 4명이다.

수상작 '순수 이제는 가까이 있습니다'는 부산 수돗물 '순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1분 30초짜리 영상물이다. 생수보다 마시기를 꺼려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중촬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왼쪽부터 임지섭, 윤형선, 권다솜, 김남준 씨.

이 작품은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콘텐츠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인 부경대의 해양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에 참여, 서로 역할을 분담해 제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해양관련 시나리오 제작과 수중촬영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실력으로 공모전에 도전,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 한편 영상편집은 김남준 씨가, 스토리텔링은 권다솜 씨, 모델은 윤형선 씨, 총괄감독은 임지섭 씨가 각각 맡았다.

/장하균기자

설계비 내년 예산 반영 오페라하우스 '강행' 논란

부산시가 땅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해 공중누각이라는 비판을 받는 오페라하우스 설계비로 내년 예산에 46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북항재개발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설계비로 46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7월 노르웨이 스노헤타(Snohetta)사, 일신설계 등과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초 설계를 시작해 2015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6년 초 착공해 2018년 말 공사를 끝낸다는 게 부산시의 구상이다. 그러나 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시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지역의 2만8427㎡ 땅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며 부산항만공사에 해당 땅을 무상양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고위 인사가 부산항만공사를 직접 찾아오거나 수차례 전화를 걸어 '땅 문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북항재개발사업 매립지 소유권 논란 때문에 부산항만공사조차 매립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형편이 더 좋지 않다. 부산시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부산항만공사가 최소 600억원에 넘는 돈을 들여 땅을 산 뒤 부산시에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2600억여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립 비용 조달 계획도 문제다. 부산시는 롯데 측이 부담하기로 한 1600억여 원을 국·시비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부산시민공원에 들어서는 국립아트센터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계는 보고 있다.

/편형뉴스

남항동 침수 걱정 덜었다

시 179억 들여 호안 정비공사 완료 내일 준공식

"태풍 파도도 막고, 주민에게 친수공간도 조성하고"

태풍이 올 때마다 거대한 파도가 넘치는 현장으로 TV 화면에 자주 등장하던 부산 남항 남항동 호안이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태풍 매미(2003년 9월) 때 호안 전면 콘크리트 구조물(T.T.P) 침하와 유실, 월파 등의 피해를 본 남항동 호안 전체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13일 오후 3시 공사현장(남항대교 옆도)에서 준공식을 연다.

남항동 월파 호안은 지리적으로 외해에 개방되어 있지만, 방파제 등과 같은 파랑 저감을 위한 외곽시설이 없어 그에 따른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또 태풍과 이상파랑 내습 때 월파로 인한 인근 주거지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호안 정비가 시급했던 곳이다.

영선동과 남항동 배후 주거지는 태풍 매미 때 심각한 침수 피해(8만 9400㎡)를 봤다.

이번 남항동 호안정비사업은 2009년 말 연안항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설계를 완료한 뒤 부산시로 이관된 사업이다.

179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2010년 5월 시작돼 2013년 10월 마무리됐다.

건설본부는 기존 호안 전면 바다 쪽으로 30m 지점에 길이 854m, 높이 10m의 신설 호안을 설치하고 기존 호안과 신설 호안 사이에 30m의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완충지대는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됐으며 태풍 때 넘치는 바닷물을 저리하고 평상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족구장, 농구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신설 호안 상단에 해상 조망로를 설치, 바다를 조망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한 도심의 삭막함을 해소하고자 해상 조망로 바닥과 호안 벽면에는 영도를 상징하는 동삼동 혁신도시와 남·북항 연결도로, 노을 등을 형상화한 컬러 무늬 콘크리트로 경관을 조성했다.

시 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호안정비사업으로 태풍과 해일 발생 시 저지대 주거지 침수 예방은 물론 평상시 휴식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단절돼 있던 해안 산책로와 둘레길이 연결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형뉴스

기초 화장법 미리 배우세요 [illegible] 아모레퍼시픽 [illegible] 고3 수험생 미용강좌에 참가한 [illegible] 고 학생들이 기초 화장법을 배우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여자 고등학교 35여 곳의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초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미용 정보를 알려주는 미용강좌를 운영한다. /뉴시스

70m로 늘어나는 해운대 백사장

모래투여 15일 공사 시행

어민 반발로 차질을 빚었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이 본격화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15일 해운대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의 핵심인 모래 투여 공사를 처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65억원을 들여 해수욕장 앞바다에 모래 13만6700㎥를 투입하는 등 2015년까지 국·시비 492억원을 들여 모래 62만㎥를 쏟아부어 백사장 폭을 40m에서 70m로 넓히는 게 공사의 핵심이다.

공사가 끝나면 백사장 너비가 40m에서 70m로 늘어난다. 모래가 바다로 쓸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돌제(육지에서 바다로 길게 뻗게 나오게 만든 둑) 100m와 200m짜리 수중 방파제(잠제)도 설치한다.

부산해항청은 9월 25일 모래 투입에 따른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미포·우동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가 최근 어민들과 합의를 이뤄 본격 공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부산관광단지역 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동부산관광단지역'(가칭)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동부산관광단지역은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구간 송정역과 기장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사로 시설공단이 부산시로부터 16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설한다.

역은 지상 2층에 전체면적 1700㎡로 하루 3만 8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철도공단은 내년 8월까지 준비를 끝내고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2월까지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역이 개통되면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동부산관광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철도 이용객의 접근성이 좋아져 교통 편의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신발·의류 피해 많다

부·울·경 조사결과 … 사교육·스마트폰 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소비자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지원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집계한 결과 2010년 24건, 2011년 40건, 작년 52건, 올해 9월 말까지 21건이 접수돼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다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건수는 137건으로 지역별로는 경남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0건, 울산 36건의 순이었다.

미성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신발·의류'와 '교재·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으로 각각 25.5%(35건)와 22.6%(31건)를 차지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서비스 10.9%(15건), '화장품' 6.6%(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방법은 '할부 판매'가 55.5%(76건)로 가장 많았고, 방문 판매나 통신 판매 등 특수 판매도 44.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료 제품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빙자한 상술에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미성년자가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는 63.5%(87건)고, 사업자의 보상 거절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27.7%(38건)를 차지했다. 또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 권고를 거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는 8.0%(11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방문 판매 등 특수 판매로 도서·화장품 등을 구입해 일부 사용했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로 반품이 가능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원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미성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과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 등 소비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든든한 한끼 '비락 라면밥' 출시

㈜비락이 편의성 및 우수한 맛은 물론 든든함까지 고루 갖춘 '비락 라면밥'을 출시해 주목된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라면과 밥에 국물까지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특히 제품에 들어가는 쌀은 도정 후 6시간 이내의 국내산 쌀(서천)만을 사용해 영양은 물론 맛까지 고려한 제품이다.

비락 대표이사 최성기 사장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는 시장 주도형 제품으로 기존 판매망은 물론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 채널 다양화로 간편조리식품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락은 작년 컵밥 4종을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정하균기자

비 수매장 모닥불 등장 11일 오전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경남 함양군 백전면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수매장에 나온 농민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녹이고 있다. /함양군청 김용만 주무관 제공

녹음광장서 14일 '청렴 마켓'

부산시가 1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진행되는 '제2회 부산 품 마켓 장터'에서 '퍼져라 청렴 부산, 열려라 희망 부산'이라는 주제로 '청렴 마켓'을 운영한다.

품 마켓은 산복도로, 원도심 낙후지역 마을 공동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품(노동력)과 물품을 '복'이라는 지역 화폐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장터를 말한다. 청렴 마켓은 청렴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터를 일컫는다.

청렴 마켓에는 청렴 부스와 청렴 배너기 설치되고 ▲착한 마을 꿈앗이 사업, 산복도로 관광 투어, 산복도로 원스톱 의료지원사업 등 청렴 사업 선호도 조사와 '나도 청렴 한마디' 코너 운영 ▲올해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한 청렴 모둠 사례 홍보 ▲청렴 홍보 전단과 홍보 기념품 배부, 청렴 음료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시는 이날 진행될 청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시민이 선호하는 사업은 내년도 청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기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

부산시는 내년 도로명 주소(새주소) 전면 사용 D-50일을 맞아 12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시철도 연산역 등지에서 '도로명 주소로 우리 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을 한다.

시는 이날 부산우정청, 연제구 공무원과 함께 도로명 주소 퀴즈엽서와 홍보물을 배부한다.

퀴즈엽서를 받은 시민은 정답과 자기 집(보내는 사람)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작성해 캠페인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22일(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기장 해조류 육성 연구센터 건립 가속도

건축설계 공모 … 내년 3월 착공

부산 기장군 주변 해역의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육성하는 연구센터 건립사업에 본궤도에 올랐다.

기장군은 최근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축설계 공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지상 3층짜리 건물 2채, 전체면적 384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인 이 센터는 종묘연구센터(1854㎡)와 종묘 배양동(1992㎡)으로 구성된다. 또 151억1300만원을 들여 연구실, 종묘 배양실, 동결 보존실, 해양수산아카데미관 등을 갖추게 된다. 연구센터는 지역 특산물인 기장미역과 기장 다시마를 보존하고 주변 해역에 적합한 해조류를 개발해 종묘 생산과 양식은 물론 유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연구센터는 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초 착공에 들어가 2015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기장군의 한 관계자는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키우기 쉬운 해조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복지시설 8곳에 녹색공간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기장군 기장실버타운 등 사회복지시설 8곳에 자연친화적인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2013년 녹색 자금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녹색 자금은 복권기금 수익금을 배분받아 조성한 자금이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녹색 공간이 조성되도록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별로 방치돼 있던 옥상과 건물 주변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인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녹색 공간으로 조성했다.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77.30	502.94	2.94	1072.03
(-7.67)	(-12.80)	(+0.07)	(+7.50)

시총 상위 20곳 쏠림 심화

● 주식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20개사의 비중이 50.60%로 지난해 말보다 0.37%포인트 높아졌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비중은 2010년 말 47.91%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다.

종목별로는 지난해 말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에 들지 못했던 네이버가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삼성바제와 하나금융지주도 나란히 17위와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국명기자 kmlee@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61
형행인 세한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승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덕춘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자센터 (02)721-9851

노후대비 '웰다잉 금융' 가입부터

금융가 사람들

■ 우리금융 이새롬 연구원

"노후 준비"하면 은퇴자금 마련만 생각하기 쉽지만 '잘 죽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법을 마련해놓는 것도 필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이새롬(사진)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웰다잉(well-dying)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가치있게 마무리하려면 자신의 임종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비하는 재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생애 의료비 절반이 65세 이후에 발생
상조예적금·간병보험 등으로 임종비용 준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나 관 속에 누워서 죽는 경험을 해보는 '임종체험' 등 대부분 비재무적인 영역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웰다잉을 재무적으로 미리 준비해놓아야 사망 전후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말기암 등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 등 이에 따른 비용이 사망 직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생애 의료비에서 65세 이후 발생하는 비용이 남성은 48.6%, 여성은 52.5%에 달했다.

이 연구원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말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웰다잉이 문화적으로 자리잡은 외국에서는 노인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지, 아니면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을지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미리 고려해 금융 솔루션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솔루션에는 사전 장례와 관련한 상조 예·적금, 상조 보험이나 의료 기부 의향·상속 등을 다루는 금융 상품이 속한다.

최근 새로운 웰다잉 금융 상품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간병보험의 경우 2008년 공적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공적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민영 간병보험 시장이 열렸다.

상속 금융 상품 중에는 유언대용신탁이 새로 출시됐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유산을 신탁에 맡기면 사망 전까지 이를 굴려서 낸 수익을 은퇴자금으로 준다. 사망 후엔 유언장대로 상속을 집행한다.

이 연구원은 "공적 건강보험의 기능이 강한 한국에서는 웰다잉 서비스에 대한 보험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100세 시대에는 60세에 은퇴한 뒤 4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증권사 5곳중 2곳 적자

올 상반기(4~9월) 증권사 5곳 중 2곳 이상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62개 증권사 가운데 26개(41.9%) 증권사가 기록한 적자 규모는 총 1921억원이었다. 나머지 36개 증권사는 4437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들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2516억원으로 전년 동기(6745억원)보다 62.6% 감소했다. /김보람기자

코스닥 '어닝 쇼크' 2% 넘게 급락 11일 코스닥지수가 12.80포인트(2.48%) 내린 502.94를 나타냈다. 기관의 대량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세 둔화, 실적 부진에 따른 부담 등이 급락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롤러코스터 장세는 'ETF 장세'

불안한 주식형펀드서 이동
올초보다 순자산 23% 늘어

코스피가 2050선에서 1970선을 빠르게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펀드 가입자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수 추종형 펀드의 전망을 밝게 봤다.

불안한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를 늘리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몸집도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익을 내는 상장지수펀드(ETF)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ETF의 순자산 규모는 18조7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말과 비교할 때 4.36%, 올해 초보다는 23.1%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55조8700억원으로 연초 대비 3.45% 줄어들었다. 전달 대비로는 2.19% 감소한 액수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펀드 투자자들이 주식형에서 ETF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됐다. ETF는 운용 보수가 다른 펀드에 비해 저렴하고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한 차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며 코스피 추종형 펀드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으로 봤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1980선 아래로까지 밀렸으니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다"며 "향후 한 번 더 상승 국면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덱스펀드(ETF 포함)에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주형 동양증권 연구원은 "매매 타이밍으로 봤을 때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 지수형 ETF에 투자할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세상을 바꾸는 '비닐 화장실' 창조경제

30일까지 이화여대서 '스웨덴 혁신기업' 소개 프로젝트 열려

전 세계 10억 명이 화장실을 편하게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은 물론이고 공터나 개울에 볼일을 봐야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문제는 14.5억에 해당하는 지구촌 인구가 자신의 대소변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콜레라 등이 지금도 후진국에서 창궐하는 이유다.

그런데 스웨덴의 '피푸'라는 기업이 '피푸'라는 배변용 비닐 봉투를 만들면서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피푸플은 대변을 거름으로 만드는 비닐을 개발해 집안에서 배변을 해결하도록 했다.

12시간 동안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2주가 지나면 거름으로 변한 배변을 팔 수도 있다.

또 다른 스웨덴 회사 '싸이클'은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자전거를 팔고 있다. 조개 모양의 스크린에 구글 스트리트 뷰 영상을 띄우고 자전거에 탑승한 환자가 페달을 굴리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원리다.

자전거 페달을 움직이는 자세로 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향, 유년기를 보낸 곳 등지를 직접 선택해 하이킹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

스웨덴 대표 브랜드 볼보의 자회사이자 스웨덴 고텐부르크대의 벤처기업이기도 한 아이페츠는 비디를 지킬 수 있는 화학 약물로 유명하다.

대형 선박은 움직일 때는 물론이고 정박 중일 때도 따개비와 같은 물질이 들러붙는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이 배의 연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린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다수 선주들이 중금속 함량이 높은 전용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아이페츠는 '셀렉토프'라는 화학물질을 개발해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11~30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스웨덴 혁신 기업을 소개하는 '이노베이티브 스웨덴' 프로젝트를 연다.

스웨덴의 20여 개 중소기업과 창조경제 내와 첨단 기술, 여성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스웨덴 영화 최신작 7편을 선보이는 스웨덴 영화제도 병행한다. 관람료는 무료.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대사는 "최근에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듯 스웨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국가 동력으로 이겨왔다. 전 세계에서 인구 비중이 0.15%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기술 주도 국가가 된 배경을 이곳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전문대 '취업 1위' 유아교육 일반대선 의학계열이 최고

● 전문대 취업률 1위 학과는 '유아교육', 일반대학은 의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사람인이 교육부의 취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 취업률이 61.2%로 대학 취업률 55.6%를 크게 앞질렀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졸업한 전국 552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 5142명의 취업 상황을 조사해 발표한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를 바탕으로 했다.

전문대 취업률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상승했다.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69.7%에서 68.9%로, 대학은 56.2%에서 55.6%로 감소했지만 전문대는 60.8%에서 61.2%로 증가한 것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유아교육'(82.3%)과 '유리 가공'(79.5%) 학과에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일반대학교에서는 '의학'(86.1%)과 '치의학'(84.3%) 등 의학계열이 강세였다. /장윤희기자

게임빌 3분기 매출만 증가

●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사 게임빌이 1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외형은 커졌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다.

게임빌은 3분기 실적집계 결과 매출 210억원, 영업이익 19억원, 당기순이익 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6.4% 늘어났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5.2%와 63.3% 감소했다.

해외시장에서 선전해 매출은 늘었지만 로열티 증가와 우수 인재 확보 등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게임빌은 최근 컴투스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 게임간 크로스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성훈기자

현대·기아차 누적 생산 8000만대 돌파

펼쳐 놓으면 서울 다덮고 일렬 세우면 지구 9바퀴

현대·기아차가 완성차 누적 생산 대수 8000만 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창사 이래 지난 10월까지 국내 및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8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누적 생산 8000만 대 돌파는 현대차가 창사 이듬해인 1968년 울산공장에서 코티나 차종 556대를 생산하고, 기아차가 1962년 소하리공장에서 국내 최초의 3륜 화물차인 K-360을 생산한 지 50여 년 만에 이룬 성과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993년 누적 생산 1000만 대를 돌파하기까지 30여 년이 걸렸지만, 2000만 대는 1000만 대를 돌파한 지 불과 6년 만인 1999년에 달성했다.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펼친 결과 생산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해 2003년 3000만 대, 2006년 4000만 대, 2009년 5000만 대를 차례로 달성했으며, 2012년 7000만 대에서 이번 8000만 대까지는 만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현대·기아차의 누적생산 대수가 8000만 대를 돌파한 11일 수출용 자동차들로 꽉 찬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생산한 8000만 대는 현대차 베스트셀링 모델인 아반떼를 한 줄(전장 4550mm, 전폭 1775mm 기준)로 세울 경우 약 36만4000km로 지구를 9바퀴 돌 수 있으며, 펼쳐 놓을 경우 약 646.1㎢로 서울시 면적(605㎢)을 덮고도 남는다.

8000만 대 중 가장 많이 생산된 모델은 아반떼로 1990년 엘란트라로 출시된 이후 910만 대가 생산됐으며 쏘나타가 673만 대, 엑센트가 663만 대로 뒤를 이었다.

/김태혁기자 [illegible]

하이브리드렌지 사면 17만원짜리 선물 증정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리홈쿠첸 본사에서 모델이 하이브리드렌지 제품 및 이벤트 경품을 소개하고 있다. 리홈쿠첸은 다음달 말까지 자사의 하이브리드렌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7만원 상당의 멀티냄비, 전골냄비, 프라이팬 등 3종 네오클램 조리기구 세트를 공짜로 증정한다. /리홈쿠첸 제공

채용면접시 '질문 공세' 세졌다

인사담당자 63% "문항 늘려"

채용 과정에서 면접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질문 개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인사담당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3%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면접 질문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늘어남'이 40.6%로 가장 많았고 '업무 역량의 적합성 또는 뛰어난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늘어남'(39.1%)이 뒤를 이었다. '거짓말이 있는지 의심하는 질문이 늘어남'(14.5%), '지원자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주가 질문이 생김'(5.8%) 등을 꼽은 인사담당자도 있었다.

압축 면접, 자기 PR 등 면접 전형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려면 필요하다'도 41.3%에 달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10.1%에 불과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매년 1000억대 소멸 '카드 포인트' 손본다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포인트 운영 체계를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신제윤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카드 포인트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 중 포인트 적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8%(잔액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포인트 유효 기간인 5년이 지나 카드사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소멸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 규모다. /김문일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假鹽七百噸

川高材生揹癱父上學

metro Sweden

Kvinna kastade tårta på Jimmie Åkesson

극우정당 대표 사인회하다 케이크 봉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도서 사인회를 하던 극우정당 대표가 한 여성이 던진 케이크에 얼굴을 맞는 사건이 있었다. 지미 아케손 스웨덴민주당 대표의 도서 사인회가 열리지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 그와 그의 정당 스웨덴 민주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시위대의 무리에서 한 여성이 경찰이 지키고 있던 현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무대에 있던 아케손 대표의 얼굴에 케이크를 던졌다. 경찰은 돌발 행동을 벌인 여성을 현장에서 즉각 체포했다.

metro Russia

Главные роли в фильме получили коты

연기력·외모 겸비한 '고양이 배우' 뽑아요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영화 '코토폴리스'에 출연할 고양이 배우들을 뽑기 위한 오디션이 실시돼 화제다. 서른 마리의 고양이를 선발하는 이번 오디션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 러시아 각지에서 3300마리가 몰려 10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오디션 관계자는 "고양이의 프로 다운 모습이 일류 배우 뺨친다"며 "개성 넘치는 연기력과 털의 빛깔 등 외모가 캐스팅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효로 반신불수 아버지 돌보는 효자 고교생 화제… "아버지 업고 산책할 때 가장 행복"

"전교 1등 놓친 적 없어요"

반신불수 아버지를 업어가며 공부하는 중국 효자 소년이 화제다.

4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예쭈위안(17)의 아버지 예춘바이는 발을 헛디뎌 추락해 반신불수가 됐다. 이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침상에만 누워있는 남편과 남매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다. 현재 누나가 외지에서 대학을 다녀 예쭈위안은 고등학교 근처에 방을 얻고 아버지를 돌보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는 매일 오전 6시쯤 일어나 물을 끓이고, 밥을 하고, 씻은 뒤 아버지의 세수와 식사를 돕는다. 7시가 되면 학교로 뛰어가 수업을 듣고 점심 시간에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집에 잠시 다녀간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집으로 뛰어와 밥을 하고 아버지께 안마를 해드린다. 예쭈위안은 종종 아버지를 업고 산책하는데, 이때가 부자(父子)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예쭈위안은 밤 11시가 돼야 공부를 하고 침대에 누워 쉴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하셨던 아버지 말씀을 항상 되새긴다"며 "집중해서 30분 공부하는 것이 대충 몇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예쭈위안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정이 특히 깊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자주 목말을 태워주곤 했다. 또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오토바이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줬다.

4년 전 아버지가 다시 설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은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혼자서 등교하는 깜깜한 길이 너무 무서웠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낙천적인 성품을 가진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점점 그늘에서 벗어났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을 때도 예쭈위안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평생 돌볼게요"라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

예춘바이는 "즐겁게 보내도 하루가 지나고 슬퍼해도 똑같이 하루가 지나는데 즐거운 편이 낫지 않겠느냐. 착한 아들딸이 있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웃음 지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Cinq autres façons de glisser

눈밭 자전거 '짜릿' 아이스 카트 '짜릿'

프랑스 이색 겨울스포츠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낼까? 눈 내리는 겨울, 프랑스엔 특별한 스포츠 다섯 가지가 있다.

◆ 다이내믹 스키

님므스의 한 스키장은 특별한 방식으로 스키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발이 스키에 고정돼 있지 않아 텔레마크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일부 수업은 무료로 진행된다.

◆ 눈 산악자전거

좀 더 역동적인 스포츠를 원한다면 눈 위에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코스도 있다. 프랑스 남동부 사부아지역엔 산악자전거를 타고 600m 가량의 가파른 길을 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 프랑스식 눈썰매

폭 20cm가량의 눈썰매에 앉아 언덕을 내려오는 놀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10유로(약 1만4000원)에 즐길 수 있는 눈썰매는 스키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 얼음 위에서 카트

오트잘프스 지역엔 1850년대부터 시작된 아이스 카트가 있다. 전기 카트를 통해 얼음 위에서 경주를 하는 이 게임은 스피드를 통한 스릴감으로 인기가 높다.

◆ 단체 에어보트

대형 에어보트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는 이 레저 스포츠는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높은 속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앞에 놓여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한다. 현재 인기에 힘입어 프랑스 여러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플로랑스 사니트르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해킹 취약한 홈피 공개한다

미래부, 기업 인터넷 서비스 취약점 분석·평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해킹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각종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파밍 등 전자 금융사기와 같은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평가해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사이버 위협 취약점 평가는 서비스 이용 빈도, 국민 생활 영향력, 침해 사고 시 파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점검 대상 기업에는 취약점 분석 방법·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한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웹페이지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뿐만 아니라 액티브X(ActiveX)와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안전성 여부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례적으로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서교일기자

폰 판매사이트 '숨바꼭질'

방통위 온라인상 보조금 감시 강화에 쪽지·전화 등 변종 영업 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강력 제재에 온라인 판매 시장도 변하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사이트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방통위가 최근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력 제재를 예고하며 온라인상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을 밝히자 이 같은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뽐뿌, 뉴버스톤 등 유명 휴대전화 공동구매 사이트가 알려지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이곳을 통해 홍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거나 이동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위키폰'이나 '호갱님 우리 호갱님' '폰싸' 등이다. 이들은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자 온라인을 통해 홍보한 뒤 오프라인상으로 직접 해당 대리점 및 판매점을 내방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개통시켜준다.

또 온라인상에는 보조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고 홍보한 뒤 전화나 쪽지를 통해 보조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호갱님 우리 호갱님'의 경우 앱을 설치하면 전국에서 가장 싸게 대리점 내방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곳의 지표를 푸시 알림으로 안내한다.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최저가 내방정책 공구가 떴을 때 안내받을 수도 있다. 위키폰은 비번을 대상으로 폰싸는 쪽지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처럼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연 현재 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한 온라인 판매자는 "우리도 대형 유통점, 수많은 대리점 및 판매점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만큼 이 같은 판매 행위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며 "뭔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수록 새로운 형태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61세부터 100세까지 암보장

라이나생명의 실버 상품 첫 가입연령 80세로 확대

라이나생명 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해 화제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겨울 필수품 '다운 패딩' 준비하세요 1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패딩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역점, 구로점 등 롯데마트 전국 70개 점포에서 판매하며 남녀 경량 다운점퍼가 5만9000원, 아동 패딩 점퍼가 2만8000원, 아동 패딩 조끼가 1만6800원이다. /뉴시스

지난달 ICT수출 사상최대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6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됐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10월 ICT 수출은 162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ICT 무역수지도 84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했으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한 77억6000만 달러였다.

10월 ICT 수출은 휴대전화, 디지털TV(D-TV), 반도체, 이차전지 등 ICT 주요 품목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ICT 수입 역시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 90.9% 증가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이재영기자

kt금호렌터카 타면 지니 음악감상 무료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를 들으며 신나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kt금호렌터카(www.ktkumhorent.[illegible])는 음악 사이트 지니(Genie)와 '드라이빙할 때 지니 음악 들으세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kt금호렌터카 이용자 중 선착순 10만 명에게 고품질 음악 사이트 지니의 100회 무료 음악감상권을 제공한다.

이 중 30명은 추첨해 음원 공개와 동시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MBC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의 앨범도 선물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수도권 분양시장 최대어' 위례신도시 이달 2525가구 분양… 당첨 전략은

서울거주자 두번의 기회

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 최대어로 꼽힌 '위례신도시'가 점버는 가운데 연내 마지막 분양 물량으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위례신도시에서 3개 단지, 2525가구가 분양된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A2-11블록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이 12일 1~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데 이어,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중순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100% 계약 마감된 송파 와이즈 더샵 견본주택.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은 공공분양아파트로 전용면적 75~84㎡로 이뤄졌다. 전량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다만 같은 1순위의 무주택 세대주라도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따라서 청약 전에 무주택 세대주 기간, 납입 횟수 및 총액 등을 살펴보는 게 좋다.

또 지역우선 거주 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에 따라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된다. 이는 곧 높은 당첨 확률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지역 거주자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이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위례 아이파크2차'는 중대형으로 구성된 민간분양아파트다.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 금액이 차이를 보이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이다.

서울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서울시 거주자라면 우선청약과 수도권지역 두 번의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 당첨자 발표일만 같지 않다면 '힐스테이트', '아이파크2차' 양쪽에 청약 가능해 굳이 1개 단지만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년 초 하남에서 분양 예정인 A3-6A블록 '위례 엠코2차', A3-6B블록 '위례 신안'으로 눈을 돌려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나오는 물량이 입지가 좋은 데다 양도세 면세 혜택도 종료돼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신도시 입성 자체가 목적인 청약 대기자라면 내년 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남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윤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5000만원

1인당 전세자금대출액 연소득 대비 97% 수준

급증세인 전세자금대출의 은행권 1인당 대출액은 약 5000만원이며 이들은 연간 227만원을 이자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세입자(9개 국내 은행 기준)의 1인당 대출액은 평균 약 5000만원으로, 연소득 대비 비율은 96.9%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11년 65.0%에서 2년여 새 껑충 뛰었다.

이들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인당 227만원으로 조사됐다.

비은행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세입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은 무려 213.8%에 달했다.

전셋값 고공 행진 여파에 건당 3000만원 넘는 고액 대출 비중은 77.7%나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전세자금 대출 중 서울(18조5000억원) 등 수도권이 68.5%(41조2000억원)를 점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중산층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한은이 추계한 전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60조1000억원으로, 3년6개월 전인 2009년 말(33조5000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차상위 20% 계층(4분위)이 22조3600억원(37.2%)에 달했고 중간 20% 계층(3분위)도 16조5300억원(27.5%)을 차지해 중산층 대출(64.7%)이 주를 이뤘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는 16.9%(10조150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약 11조600억원(18.4%)은 최하위 20%(1분위)와 차하위 20%(2분위)에 해당됐다.

/김형민기자 hkim18

아파트 경매 3024건 '13년래 최대'

경기 침체 속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법원 경매로 유입되는 물건 수도 늘고 있다.

11월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10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0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2362건보다도 28%나 증가한 것으로, 이 회사가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3건, 경기가 1865건, 인천은 406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9월 1319건에 비해 41% 급증했고, 서울은 621건에서 21% 늘었다. 인천은 다소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거래 실종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들 물건이 충분히 소진되기 전까지는 저가 낙찰되는 아파트로 인해 주택 시장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래미안 강동팰리스'에 쏠린 눈 삼성물산이 오는 15일 '래미안 강동팰리스'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9~10월 이틀간 고객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남권 직주근접 입지와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관심이 집중되며 3000여 명의 고객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삼성물산 제공

59㎡ 순위내 마감 97%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59㎡의 순위 내 마감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가 포함된 곳은 총 17개 단지, 31개 타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개 타입이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고, 1순위 마감된 단지도 22곳에 달했다.

내곡지구, 세곡2지구, 서울강남지구 등 공공 물량은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이 밖에 공덕자이, 관악파크 푸르지오,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래미안 대치청실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도 1순위 마감되며 전용면적 59㎡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DMC가재울4구역,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즈힐, 관악파크 푸르지오 등 청약 당시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던 단지들도 전용면적 59㎡만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서울에서 전용면적 59㎡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 물량이 적고, 입지가 양호하고, 분양가 총액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신평면 개발로 소형 아파트라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에 따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몰리면서 59㎡ 청약 몰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선옥기자

"멜로디힙합 실험… 내 안에 반항이 있다"

빅뱅의 태양(25)이 오랜 기다림 끝에 눌러온 음악 욕구를 분출시킨다. 3년 전부터 앨범을 구상해 2년 전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그는 발매 일정이 미뤄지면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음악 취향과 고집을 꺾지 않았다. 8일 선공개곡 '링가 링가'로 포문을 연 그는 연말 싱글 한 장을 더 내고 내년 초 정규 2집을 출시한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걱정도 컸겠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고 기다렸지만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무척 컸다. 언제 앨범을 발표할지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다 보니 아무것도 못 했다. 예능이나 연애 같은 자유로운 개인 활동을 아무것도 못 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양현석 사장님이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라 일정이 밀린 건 내 고집 탓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신인의 자세가 됐다. 마치 연습생 때처럼 다시 갈구하게 됐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길거리에 사과 상자 하나 올려 놓고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다.

-'링가 링가'는 기존에 주로 해오던 R&B와 다른 멜로디 힙합 성향이 짙다

지금 내게 가장 끌리는 음악이다. 데뷔 전 래퍼를 꿈꾸기도 했다. 물론 지드래곤과 함께 작업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더 강해졌을 것이다. 곡을 받고 하루 만에 녹음을 마쳤을 정도로 좋았다. 빅뱅 데뷔 후 줄곧 지드래곤의 음악을 노래했고 나의 음악 스타일을 테디 형 다음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내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줬다.

-2집에 자작곡은 어느 정도 포함되나

6곡에 참여했다. 해외에서 좋아하는 프로듀서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었다. 미국의 유명 R&B 작곡가인 언더독스와의 작업이 발단이 돼 여러 뮤지션과 작업하게 됐다. 미국 프로듀서 제피 외레즈, 바틀과도 여러 차례 작업한 DJ 보이즈 노이즈 등도 참여했다.

-어떤 장르의 곡들이 담겼나

정말 다양한 음악을 담았다. R&B·힙합·일렉트로닉·발라드 등 성향의 곡 등이다. '링가 링가'는 이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은 곡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런 시도를 하면서 내 색깔을 입혀 나가는 게 뮤지션으로서 길게 볼 때 중요한 것 같다.

-4월에 조용필의 19집 '헬로'가 나왔을 때 특별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도 자신의 음악적 소신과 관련이 있다

선배님을 보면서 가수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며 답안을 얻었다. 과거에 선배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가수에 대한 나의 고민을 씻을 수 있었다.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분이다. 선배님의 마인드는 역시 킹 오브 K-팝답다. 또 가수의 꿈이 가장 이상적인 판남은 무대 위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빅뱅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6곡 자작…초심으로 돌아가
지드래곤에 음악외적 큰 영향
이제는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

-13세부터 함께 지내온 지드래곤은 가장 친한 동료이자 솔로 가수로서 경쟁자일 것 같다

지드래곤의 솔로 월드투어 결한 이상을 함께 돌았다. 빅뱅의 월드투어와 비슷한 규모를 혼자 해내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지드래곤의 성공적인 활동은 빅뱅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 부럽기보다 좋다. 지드래곤은 내게 음악 외적으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다.

-데뷔 8년차를 맞았는데 목표는

거창한 목표보다 빅뱅이 어떻게 헤나가야 하느냐는 생각이 가장 크다. 빅뱅은 나의 뿌리이고 나는 여러 가지 중 하나다. 빅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멤버들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멤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빅뱅 멤버 중 가장 바른 생활 이미지인데 욕구를 참고 지내나

모범생은 아니다. 속에 반항적인 생각이 가장 끓어오르는 멤버가 나다. 단지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할 뿐이다. 그래도 지금 전화 해보고 싶은 건 사랑이다. 지금 필요한 시기다.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illegible]

주연테크 컴퓨터 주연테크 컴퓨터는 Windows 8 을 권장합니다.

주연테크 고객감사 '초특가' 한정판매!

운수대통S324A + 20형 LED모니터 포함

789,000원

운수대통 G23A
-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G2030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4GB(1066MHz) DDR3 RAM
- S-ATA2 500GB HDD(7200RPM)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579,000원

엑설런트 V347C
- 인텔® 코어™ i5-347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8GB(1066MHz) DDR3 RAM
- S-ATA2 500GB HDD(7200RPM)
- nVidia Geforce GT63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899,000원

엑설런트 AV357H
- 인텔® 코어™ i5-357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8GB(1066MHz) DDR3 RAM
- S-ATA2 1000GB HDD(7200RPM)
- nVidia Geforce GTX65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999,000원

공통사양

구입문의

070-7600-2375

주연테크 쇼핑몰에 오시면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jooyon.co.kr)

컴퓨터 구입! 왜? 주연테크 컴퓨터 일까요?

하드웨어 24개월 무상수리!

365일 서비스 상담전화

1588-1118

출장 A/S 저녁 9시까지 연장!

소프트웨어 1개월이내 1회 무상서비스!

Made in Korea

친환경·친건강 컴퓨터

탄탄한 기업 주연테크

고객님의 말씀을 대표이사가 직접 듣습니다.

주의사항

주연테크 컴퓨터 www.jooyon.co.kr

수컷냄새가 더욱 진해졌다

거친 삶 살아온 세 남자에 초점 맞춰 울산 배경…영화 집중도는 떨어져

film review

■친구 2

14일 개봉될 영화 '친구2'는 12년 전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니가 가라 하와이' 등의 명대사를 남기며 신드롬을 일으킨 장동건·유오성 주연의 '친구'의 17년 후 이야기를 그린 속편이다.

준석(유오성)이 전편에서 죽은 동수(장동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후 세상에 나와 조직에서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 주요 줄거리다.

전편이 부산을 배경으로 했다면 속편은 남성적인 도시인 울산을 무대로 해 더욱 진해진 누아르를 선사한다.

속편이지만 전편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곽경택 감독은 전편에선 제목 그대로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해 관객들에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게 했다면 속편은 각기 다른 시대에 거친 삶을 산 세 남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준석을 중심에 두면서 그의 아버지이자 1960년대 부산을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주먹 철주(주진모), 준석의 재건을 돕다가 뒤늦게 자신이 동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성훈(김우빈)의 이야기를 배치해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과거와 현재를 수시로 넘나든다. 세 인물들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이야깃거리는 보는 재미를 높인다.

배우들의 열연도 전편 못지않은 볼거리다. 17년 후의 준석처럼 어느덧 중년이 된 유오성은 더욱 깊어진 연기로 '아직 죽지 않았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위험한 패기가 넘치는 청춘을 연기한 신예 김우빈도 새롭게 발견한 재목이다.

물론 '전편만 한 속편은 없다'는 속설에선 '친구2'도 자유롭지 않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한 탓에 영화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한 경상도 사투리가 몇몇 장면에서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동수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래도 '친구'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관객이나 진한 한국형 누아르를 보고 싶은 관객이라면 볼 만한 작품이다. 청소년관람불가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잔혹 장면 빼도 너무 무서워"

'인시디어스2' 내달 개봉

제임스 완 감독의 신작 '인시디어스: 두 번째 집'(다음달 5일 개봉)으로 또 한 번 극장가를 공포 분위기로 물들인다.

제임스 완 감독은 올해 '컨저링'으로 북미 지역에서 1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역대 공포 장르 외화 중 최다 관객(226만 명)을 동원했다. 이미 공포영화 팬들 사이에 "'컨저링'은 예고에 불과할 만큼 무서운 영화"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번째 집' 개봉을 앞두고 예고편만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잠에서 깨지 못하는 아들을 유체이탈로 데려온 후 기이한 현상을 겪는 가족과 그 집에 얽힌 비밀을 그린 영화로, 국내 예고편은 잔인한 장면이 없음에도 너무 무섭다는 이유로 등급 심의에서 이례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다.

미국에서 9월에 개봉된 '~두 번째 집'은 개봉 당월에만 제작비의 4배에 달하는 20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첫 주말 수익은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에서 한 해 두 편의 영화를 공개해 개봉 첫 주 수익으로 4000만 달러 이상을 연속 기록한 감독은 2003년 '매트릭스' 시리즈 2·3편을 내놓은 워쇼스키 남매가 유일하다.

'~두 번째 집'은 2010년 개봉한 1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자 '컨저링'의 시작이 되는 내용이다. /유순호기자

메가박스 무비아카데미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제2회 메가박스 무비아카데미'를 16일 코엑스점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영화 관람 후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영화 이면에 녹아 있는 요소의 흐름을 짚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영화, 연애를 담다-연/애/담'을 주제로 다음달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5차례 진행된다.

'8월의 크리스마스'(16일), '해피엔드'(23일), '봄날은 간다'(30일), '접속'(다음달 7일), '클래식'(다음달 14일) 등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개봉한 한국 멜로영화 대표작 5편이 상영된다. /유순호기자

2011-서울강남-0163]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거절된적 있으십니까?
100만원 누구나! 무상담대출

저도 되네요!
완전 쉽던데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2년된 3DTV로 3D방송 못봐?

관련표준 지난해 초 확정
2012년 이전 구입한 제품
업그레이드 등 조치 필요

"우리 집 TV로도 3D 방송을 볼 수 있을까."

SBS가 10일부터 지상파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3D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이전에 출시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D TV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별도 셋톱박스를 구비해야 3D 영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제품은 홈페이지(www.samsung.com/sec)에서 펌웨어를 USB에 내려받은 뒤 TV에 연결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3D 방송을 볼 수 있다. 2011년 출시한 PDP 3D TV 일부 모델은 서비스센터에서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한다.

LG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셋톱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 셋톱박스를 받지 못했다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3D 방송 표준이 지난해 1월에서야 '듀얼 스트림(dual-stream)'으로 확정되면서 이전에 나온 3D TV의 경우 업그레이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듀얼 스트림은 기존의 지상파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좌(左) 영상'과 2배로 압축한 '우(右) 영상' 신호를 동시에 송출해 일반 디지털 TV를 가진 가정에서는 2D로 시청하고 3D TV를 보유한 가정에서는 2D와 3D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국현기자 ki##@####

다음 '달력+다이어리' 쏠 캘린더 앱 언어추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시장을 겨냥해 쏠캘린더 신규 언어를 추가했다.

11일 다음에 따르면 달력과 다이어리를 결합한 앱 쏠캘린더는 지난 9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출시됐다. 세련된 디자인, 현재 위치 날씨 정보 제공, 스티커를 이용한 일정 꾸미기 등이 특징이다.

다음은 쏠캘린더 이용자의 70%가 외국인일 정도로 세계 시장 반응이 좋자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터키어를 새롭게 추가했다. 일정 관리 기능을 매년, 매월, 매주, 매일 단위로 상세히 등록하게 했으며 반복 횟수나 종료일 등의 설정도 용이하게 했다. 쏠캘린더의 위젯 상 월별 이동도 가능하게 지원한다.

/정호철기자

'IT 집성촌'이 바뀐다

안랩부터 게임업체까지
판교밸리로 사옥이전 붐
대표SW기업 떠난 강남엔
소셜커머스들 속속 입주

"가자 남(南)으로!"

IT업계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는 IT기업의 이사철로도 불린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경기도 분당구 삼평동은 게임업계 집성촌으로 진화했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넥슨, 네오위즈, 엑스엘게임즈 등이 판교로 사옥을 옮겼거나 올해 안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랩과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업체도 판교에서 만날 수 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지난해 일찌감치 판교에 자리를 잡았다.

판교는 비싼 임대료의 강남, 외진 위치의 상암동과 가산·구로디지털단지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체지로 떠올랐다. 판교에 조정기 진출한 IT기업의 사업이 번창한 점도 입소문을 낳았다.

이 밖에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관련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엔씨소프트처럼 직접 사옥을 짓는 경우 성남시의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NHN엔터테인먼트 위)와 엔씨소프트의 판교 사옥 내부 모습.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눈길을 끈다.

엔트리브소프트 윤윤와 실장은 "게임사들끼리 모여있다 보니 동질감도 들고 협업이 잘된다"면서 "각종 유·무형의 혜택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IT기업들이 빠져나간 강남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채우고 있다.

쿠팡은 엔씨소프트가 사용하던 삼성동 빌딩으로 최근 이사했다. 송파구 잠실에 있던 티몬도 지난 추석 이후 삼성역 근처로 사옥을 옮겼다. 위메프는 20일 입주를 목표로 강남에 5층 규모 신사옥을 짓고 있다.

한편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IT기업 중 유일하게 강북행을 택해 시선을 모았다. 15년간의 강남 포스코센터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지난달 종로구 광화문 인근으로 확장 이전한 것이다. 한국MS는 사옥 이전을 통해 사무 공간을 늘리고, 사업 부진을 겪는 회사 분위기도 쇄신한다는 입장이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필름카메라 닮은 즉석카메라 한국후지필름은 프리미엄 즉석카메라 '인스탁스 미니90'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중 노출, 어두운 촬영, 움직임이 많은 피사체 촬영 최적화된 키즈 모드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후지필름 제공

SKT-나모인터 '클라우드 웹트리' 공동개발

SK텔레콤은 웹 제작 소프트웨어 업체 나모인터랙티브와 11일 '클라우드 웹트리'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들은 월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클라우드 웹트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웹사이트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연평균 600만원과 비교했을 때 8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양사는 '클라우드 웹트리'를 약정 기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고가의 운영 비용을 이유로 웹트리 사용에 부담감을 느꼈던 10개 미만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웹트리 사용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사는 '클라우드 웹트리'를 다음달 중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이며 내년 1분기부터 해외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대기만성형' 30대 두 배우

서울예술단 박영수 조풍래

서울예술단 소속 뮤지컬배우 박영수(31·사진 왼쪽) 조풍래(30·오른쪽)가 요즘 뮤지컬계에서 나란히 주목받고 있다. 한 살 차이의 또래로 예술단 내에서 둘도 없는 '절친'인 이들은 뒤늦게 만개해 예술단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 푸른 눈 박연 나란히 출연

'윤동주 달을 쏘다'와 얼마 전 막 내린 '잃어버린 얼굴 1895'를 비롯해 서울예술단에서 올리는 작품마다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현재 가무극 '푸른 눈 박연'(~17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 함께 출연 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 서양인인 박연의 삶을 노래와 춤을 곁들여 코믹하게 재구성한 이번 작품에서 박영수는 순진무구한 바보 덕구 역을, 조풍래는 어관 훈련도감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멀티맨 3인 금은동 중 동 역을 연기해 웃음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예술단 내에서도 소문난 노력파다.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술단이 한국적인 소재의 작품을 주로 올리는 특성 탓에 매번 시험 준비하듯 역사책은 물론 야사까지 찾아 공부한다.

박영수는 "조풍래는 극에 대한 해석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예술단 내에서 '조작가'로 통해 나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물어본다"면서 조풍래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깊은 우정을 과시했다.

◆그들이 걸어온 길

이들이 처음부터 예술단원으로 출발해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박영수는 연극배우 출신이다. 연극배우

> 야사까지 찾아보는 노력파
> "조, 예술단 '조작가'로 통해
> 박, 수많은 여성팬들 보유"

들이 그렇듯 '그도 한때 배고픈 서러움을 겪다 2009년 뒤늦게 입단했다. 조풍래는 국내에 몇 명 되지 않는 봉산탈춤 전수자로, 2010년 예술단에 들어왔다.

조풍래는 "예전에 전공을 선택할 적에 남들과 똑같은 게 싫어서 봉산탈춤을 택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는 탈춤을 연습한다. 탈춤과 뮤지컬이 달라 보이지만 통하는 부분이 있다. 무대 장악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사실 활약은 예술단 밖에서 더욱 돋보인다. '뮤지컬계의 삼성'으로 불릴 정도로 실력 있는 배우 수십 명이 모인 예술단 내에서 경쟁하며 탄탄하게 쌓은 내공 덕에 화제작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다.

'아르센 루팡' '쓰릴 미' 에 출연해 많은 여성 팬층을 확보한 박영수는 현재 공연 중인 '요셉 어메이징'에서 주인공 요셉 역을 맡았으며 조풍래는 '잃어버린 얼굴 1895' 등을 통해 뮤지컬계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라 9일 개막한 '풍월주'에 남자 기생 열 역으로 발탁됐다.

밖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도 예술단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조풍래는 "단원들은 공연이 있든 없든 하루 종일 함께 모여서 연습한다"고 애정을 내비쳤다. 박영수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나 있고 싶다. 이곳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선희기자 sak0427@metroseoul.co.kr

사진/서울예술단 제공

스릴러 미드·영드 3편 잇따라 선뵌다

'화이트 채플' 등 방송

케이블 채널 AXN이 스릴러 장르의 최신 시리즈들을 잇따라 선보인다.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50분 영국 드라마 '화이트 채플' 시즌 4를 방송한다. 영국 ITV에서 방송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모방범죄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17세기 마녀사냥꾼 매튜 홉킨스 사건, 네사스 연쇄살인 사건에 다시 벌어진다. 시즌 4는 총 6부작으로 방송된다.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50분에는 미국 드라마 '오펀 블랙'이 방송된다. '오펀블랙'은 올해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작품상 연출상 미니시리즈 부문 등 3관왕을 차지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복제인간을 다룬 이 작품은 여주인공 사라 매닝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성의 자살 장면을 목격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총 10부작이다.

1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에는 미드 '컬트'(사진)가 전파를 탄다. 허구 속의 살인 사건을 좇는 TV 드라마 '컬트'에 빠진 컬트 집단의 음모와 살인을 파헤치는 스릴러 장르 드라마다. 총 13부작이다.

한편 AXN은 신작 방송을 기념해 홈페이지(www.axntv.co.kr)에서 '박재범 서울콘서트' 뮤지컬 '삼총사' 티켓을 제공하는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성현기자 jpark@

"김희선은 전설적 아름다움 가진 배우" 배우 김희선이 이탈리아 보그 남성판인 로모 보그의 한국 특집에서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한국 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이 등장한 이번 특집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배우로 참여한 그는 한복을 기본으로 세계적인 의류 패션과의 조화를 시도했다. 이탈리아 현지 측은 김희선을 '전설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배우'라고 칭했다.

/힌지엔터테인먼트 제공

▶ 이탈리아 미남들도 반할 미모지요? /박동희기자

엑소 카이·찬열·백현·수호 '멜론 뮤직 어워드' MC

'2013 멜론 뮤직 어워드'에 대중문화계 대표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배우 이유비와 함께 그룹 엑소가 시상식 공동 MC로 선정된 가운데 12명의 멤버 중 MC로 나설 멤버가 공개됐다. 각자 다른 끼와 재능으로 매력을 발산해온 카이 찬열 백현 수호가 MC로 나선다.

멜론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배우 성준을 비롯해 섹시아이콘으로 등극한 클라라와 이태임,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 전소민·서하준 커플, tvN 'SNL 코리아'로 화제를 모은 김슬기, 버스커버스커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의 아오이 유우로 주목받은 손수현, 개그맨 김준호·김지민 등이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인순이와 신승훈, 백지영·이현도·주영훈 등이 시상자로 나와 후배 가수들의 수상을 축하한다.

'멜론 뮤직 어워드'는 올해 5회째로 1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장남희기자

또 고개드는 연예계 '11월 괴담'

이수근·탁재훈에 이어 토니안 등 불법도박혐의 조사

'11월 괴담'에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속설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1월에 유난히 사망·폭행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불거지며 '11월 괴담'이란 말이 돌았다. 특히 11월부터 연말까지는 검찰과 경찰의 성과 평가와 인사고과가 이뤄지는 기간이기도 하다.

실적을 올려야 하는 검찰과 경찰이 이 시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일찍 발표할 수 있는 것도 11월쯤 알려지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11월 괴담을 뒷받침한다.

올해는 방송인 이수근·탁재훈이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11월 또 다른 연예계 광풍이 불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수근·탁재훈의 불법도박 혐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맞대기 도박'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맞대기 도박으로 수억원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은 10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탁재훈은 이수근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아직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11일에는 가수 토니안(사진)과 앤디 붐도 불법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스쿨스토어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안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스쿨스토어에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본인 소유 지분까지 정리가 끝났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타들의 줄소환 소식에 방송가는 일대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연예계의 '11월 괴담'은 가수 유재하와 김현식이 각각 1987년과 1990년에 요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듀스의 김성재도 1995년 11월 의문사했고, 2000년에는 룰라의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었다. 이외에 연예인과 관련한 대형 사건 사고들이 이달에 유독 몰려들었다.

/김상호기자 ysw@metroseoul.co.kr

에일리 누드사진 유포… "사기 당한 것"

누드 사진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에일리(사진) 측이 사진 유출 경위를 밝히며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에일리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11일 "해당 사진은 에일리가 미국 거주 당시 미국의 유명 속옷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 카메라 테스트용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몸매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누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유명 속옷 모델의 테스트이기에 개인 신상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믿고 촬영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테스트 촬영을 마친 뒤 제의를 해온 측과 연락이 두절됐고 사기단의 소행으로 판명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경찰 신고 후에도 불안감에 시달리던 에일리는 영어권 한류 매체인 올케이팝에 근무하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 내용을 털어놓고 상의했으며,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 남자친구의 설득에 이 사진을 보내주게 됐다.

에일리 측은 "해당 사진의 유포자에게 개인신상보호법에 따른 불법 유포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케이팝은 10일 '에일리인지도 모르는 여성 누드 사진 유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여러 장의 영상 캡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황숙호기자

차태현·김종민 빼고 '1박2일' 멤버 바뀐다

KBS2 '해피선데이'의 장수 코너 '1박2일'이 시즌 3로 제2의 도약을 노린다.

KBS는 "'1박2일'이 제작진 변화에 이어 멤버 변화로 시즌 3 체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출연진 6명 중 배우 유해진·엄태웅, 가수 성시경, 방송인 이수근 등 4명은 하차한다. 배우 차태현과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은 시즌 3에 잔류한다. 유해진과 엄태웅은 영화 출연으로, 성시경은 음반 준비를 이유로 제작진과 협의 과정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다. 불법도박 혐의로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방송인 이수근은 자숙 차원에서 하차한다.

새로운 멤버와 관련해 KBS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수 존박, 밴드 장미여관의 육중완, 그룹 샤이니의 민호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기존 출연진 6명의 마지막 촬영은 8일 강원도 고성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여행이 담긴 시즌 2의 마지막 회는 24일 방송된다. /황숙호기자

무대서도 강단서도 슈주 빛났다

런던 '슈퍼쇼5' 1만 관객 열광 옥스퍼드대 강연엔 400명 학생 참석

슈퍼주니어가 무대와 강단을 오가며 영국에 K-팝 감동을 몰아쳤다.

이들은 10일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월드투어 '슈퍼쇼5'를 열고 영국은 물론 프랑스·독일·폴란드·헝가리 등 유럽 각지에서 운집한 1만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다.

정규 5집 타이틀곡 '미스터 심플'로 공연의 막을 올린 슈퍼주니어는 '쏘리 쏘리' '미인아' '섹시, 프리 & 싱글' 등 히트곡 무대는 물론 앨범 수록곡 무대, 유닛 무대, 분장쇼 등으로 채워진 총 23곡의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다채로운 음악과 화려한 무대 연출,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에 환호를 멈추지 않았다.

슈퍼주니어의 은혁·규현·강인·시원은 공연 다음날인 11일 옥스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협회 및 한인 학생회의 초청으로 옥스퍼드대 유니온 디베이팅 챔버에서 '슈퍼주니어, 더 라스트 맨 스탠딩'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글로벌 한류 열풍의 주역인 슈퍼주니어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황숙호기자 sumi@

슈퍼주니어의 규현·시원·은혁·강인이 옥스퍼드대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tar bag

브아걸 유닛 M&N 공개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첫 유닛 M&N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미료와 나르샤로 구성된 M&N은 11일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첫 싱글 '오늘밤'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오늘밤'은 음원 공개 직후 각종 음원 실시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나르샤와 미료가 직접 작사한 가사에는 여자의 솔직한 고백을 담았다.

내년 앙코르 '글로벌 투어'

SBS 수목드라마 '상속자들'에 출연 중인 배우 이민호가 팬들의 요청으로 글로벌 투어 콘서트를 다시 연다.

이민호의 소속사는 11일 "글로벌 투어 콘서트 '마이 에브리씽' 앙코르 공연이 내년 1월 18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민호의 글로벌 투어 콘서트는 팬들을 위한 기념 음반을 낸 지난 5월부터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열렸다.

데뷔 12년만에 라디오 DJ

배우 김지우가 데뷔 12년 만에 라디오 DJ에 도전한다.

그는 EBS FM '어른을 위한 동화'의 DJ로 발탁돼 11일부터 생방송 진행에 나섰다. 김지우가 정식 DJ로 라디오 부스에 앉게 된 것은 2001년 데뷔 이후 처음이다. '어른을 위한 동화'는 훈훈한 감동과 교훈이 있는 동화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오전 10시 방송된다.

'비밀' OST 직접 부른다

배우 지성이 KBS2 수목드라마 '비밀'의 OST를 직접 부른다.

13일 자정 공개 예정인 신곡 '폭풍의 언덕'은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했던 책 '폭풍의 언덕'과 동명이라 눈길을 끈다. '비밀' OST는 이미 나비의 '불치병' 등 공개되는 곡마다 큰 인기를 모았다.

요즘 소형가전 '디자인이 갑'

소비자 제품구입 기준엔 인테리어 기능까지 겸비
소다스트림·화산스토리 세계적 디자인상 휩쓸어

소형가전 기업들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의 레드닷, IF, 미국의 IDEA를 비롯한 각종 어워드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중요시하는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제품 개발에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0년 전통의 탄산수 제조기 소다스트림의 '소스'는 유명 산업 디자이너 이브 베하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이브 베하는 환경보호 및 사회변화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명 디자이너다. 소스는 디자인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까지 배려된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코웨이는 미국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13'에서 총 9개 제품이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은상을 받은 '화산 스토리 가습기'는 전 세계의 유명 화산들을 디자인 모티브로 한 제품으로 동그란 도넛 형태로 수증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원액기 브랜드 휴롬이 최근 출시한 2세대 휴롬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 국내 최고의 디자인상인 '굿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새로운 조절 레버를 장착해 찌꺼기 배출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휴롬 원천 기술인 올뉴 소재의 스크루도 2중 스크루로 개선해 주스 착즙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소다스트림을 국내에 유통·수입하고 있는 밀텍산업의 황의경 대표는 "소형가전이 주방 인테리어를 좌우하는 잇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면서 기능은 물론 디자인에 주력하는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며 "소디스트림의 경우 제품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각종 예술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세계 디자인상을 휩쓴 소형 가전제품들. 왼쪽부터 소다스트림의 '소스', 코웨이의 '화산 스토리 가습기', 휴롬의 원액기 2세대 모델.

코데즈컴바인 커플 속옷 레드·그린 두가지색 출시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가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커플 속옷 세트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부드러운 투웨이 원단을 사용해 은은하게 비치는 광택이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검정색 밴드에 골드 컬러 로고로 포인트를 줬다. 색상은 레드, 그린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전국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www.codes-combine.co.kr

메마른 너, 그러다 늙어!

가을 모발·피부 보습 요령

요즘같이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공기 중의 수분 함량이 낮아져 모발과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특히 직장인들이 오래 머무르는 사무실은 바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와 난방기 바람 등으로 인해 더욱 수분을 빼앗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므로 틈틈이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푸석한 모발엔 헤어전용 오일·에센스 발라야

바쁜 아침 시간에 머리카락을 완전하게 건조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직장인들의 경우, 사무실의 건조함과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모발이 더욱 푸석해지기 쉽다.

모발이 건조해지면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거나 상하게 되고, 심할 경우 탈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모발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건조한 모발에는 헤어 오일이나 에센스를 발라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이때 모근 부분은 피해서 발라야 머리가 기름져 보이거나 뭉치지 않는다.

◆건조해진 얼굴에는 수시로 수분 공급

건조한 사무실에 장시간 있다 보면 얼굴이 건조해져 당기거나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피부의 수분 부족은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된다.

/서경대학교(사) '다솔드' 제공

콜라겐이 손상돼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

민감한 사람은 피부 가려움증과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피부의 수분 갈증은 아침저녁 케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무실에서도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수시로 발라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건조해지는 손엔 씻은 직후 고보습 제품으로 관리를

다른 부위에 비해 자주 씻게 돼 쉽게 건조해지는 손은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철에는 손뿐만 아니라 손톱 주변에 살이 일어나거나 손톱이 건조해질 수 있어 다른 때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손은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부위기 때문에 손을 씻고 난 후 다소 귀찮더라도 반드시 핸드크림과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장병철기자 [illegible]

하프클럽 '진짜 특가' 게릴라 홍보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하프클럽이 회원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11일 강남역 인근에서 '진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게릴라 이벤트에서는 유격 조교 복장을 한 홍보맨들이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하며 PT 체조와 번번 퍼포먼스 등을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선릉역·강남역·여의도역·사당역·신사역을 중심으로 11~12일 양일간 진행된다. /박지원기자

'맛있는 강원도' 맛보세요

14~17일 양재 aT센터서 제2회 강원푸드박람회

(사)강원도민회중앙회는 강원농협, 강원일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회 강원푸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강원도 18개 시군 및 식품업체들이 참여해 강원도의 식품을 홍보해 강원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한편 강원도 식품 산업에 대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 홍보관 ▲식[illegible] 업체 홍보관 ▲사찰음식 홍보관 ▲전통주 및 전통식품 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바이어 구매상담회, 사랑의 쌀독 기부 캠페인, 강원도 전통주 시음회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강원도 식품산업 관련 공공기관, 대학교, 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가해 강원도 식품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 촉진 및 협력 강화 등을 펼칠 예정이다.

박람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향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청정 강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중학생 위한 교과서 소설 천재교육 전집세트 할인

천재교육이 중학생을 위한 '교과서 소설 전집'을 출시한다.

전집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4종 국어 교과서 본문에 나온 소설 작품이 빠짐없이 수록돼 있다.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지식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했으며 어려운 어휘나 구절은 사진을 곁들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했다.

세트 가격은 4만4000원이며, 출시 기념으로 1000세트에 한해 3만6600원에 판매한다.

'아웃도어 배낭' 그레고리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중

명품 아웃도어 배낭 브랜드 그레고리가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한정판 그레고리 배낭을 메고 활동하는 영상을 블로그 및 SNS에 올려 그레고리를 홍보하면 된다.

20일까지 에코로바 블로그(blog.naver.com/echoroba01)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뒤 e메일(echoroba0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갈치 가격 4년만에 최저

어획량 20% 증가했지만 日방사능 탓 소비 위축돼 롯데마트 등 반값 판촉전

국민 대표 생선인 '갈치' 가격이 최근 들어 4년 전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은 조 고공 행진을 하며 '금(金)갈치'라 불리던 값이 무색해졌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갈치'(5kg·상)의 가락시장 10월 평균 도매 가격은 8만9268원으로 작년보다 24.6% 하락했다.

이 같은 갈치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는 우선 어획량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1~9월 갈치 어획량이 매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어획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7월 이후 어획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원전 사태에 따른 방사능 공포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부진한 것도 갈치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마트에서도 갈치 매출이 전년 대비 8월 11.8%, 9월 9.3%, 10월 38% 감소했다.

이런 이유로 8월 이후 갈치 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귀포 수협의 '제주 갈치'(10kg)의 9월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8만9420원에서 올해는 6만6200원으로 25%가량 하락했고, 평년 가와 비교하면 30% 이상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제주산(産) 갈치'(냉동)를 시세 대비 최대 반값 수준에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삼성·KB국민 카드로 결제 시 제주산 갈치 1마리를 중(230g 내외) 사이즈는 1900원에, 대(320g 내외) 사이즈는 4000원에, 특대(400g 내외) 사이즈는 7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황재용기자

서울 이마트 용산점은 13일까지 제주산 갈치를 기존 가격보다 43%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 /연합뉴스

무첨가 '원물 간식' 전성시대

청정원 고구마츄·올가 과일칩 등 100% 자연원료로 인기

과자나 음료와 같은 간식류에 과다하게 들어있는 설탕이나 첨가물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지적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물 그대로의 간식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아이를 둔 주부나 미용에 신경 쓰는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정원의 '고구마츄'는 신선한 고구마를 바로 쪄서 그대로 말린 제품이다. 고구마 본연의 단맛을 느낄 수 있으며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만을 사용해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100% 원물 건강 간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별다른 광고 없이도 출시 5개월 만에 7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대상 청정원의 유지봉 과장은 "고구마츄의 생산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생산시설 증진을 통해 200%까지 생산능력을 키우고, 내년에는 1000만 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가홀푸드의 '올가 친환경 과일칩 3종'은 국산 친환경 생과일을 그대로 동결 건조시켜 만든 건강 스낵이다. '올가 사과칩', '올가 배칩', '올가 딸기칩' 3종으로, 생과일을 기름에 튀기거나 굽지 않고 동결 건조시켰다. 과일 고유의 맛과 향은 물론 천연 식이섬유·무기질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있다. 또 화학팽창제·합성착향료·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등 각종 화학 첨가물과 설탕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무첨가 천연 원료 트렌드는 음료 제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천연 이온음료로 주목받고 있는 '비타코코 코코넛워터'는 엄선된 그린 코코넛에서 얻은 100% 순수 코코넛 워터로 만들었다. 농축액을 희석시켜 만들거나, 열처리나 녹이는 등의 중간 과정 없이 신선한 코코넛 워터를 그대로 담았다. 설탕과 같은 인공감미료도 일절 첨가하지 않았다. 수분 공급 효과 외에도 피로 해소에 좋은 칼륨과 비타민 C, 전해질 등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무지방·무콜레스테롤이며 칼로리도 66kcal로 낮은 편이다. 지난 4월 국내 출시 후 5개월여 만에 3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진출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푸드는 국내 최초로 100% 우유만을 발효시켜 만든 파스퇴르 '오직 우유100%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요구르트'를 선보였다. 정부의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목장의 1등급 A 원유와 유산균만 넣어 순수한 자연의 맛과 홈메이드 요구르트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제품 한 병에 락토바실러스균을 비롯해 3종의 유산균이 500억 마리 이상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다. 설탕 등 당류가 전혀 첨가되지 않아 다이어트용으로도 적합하다. 기호에 따라 생과일이나 꿀을 넣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장윤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강강술래 주문땐 '짭짤한' 선물

김장철 맞아 천일염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입동 후 김장 준비를 서두르는 고객들을 위해 김장용 소금을 무료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말까지 대용량 한우 사골곰탕 선물세트(800ml 5팩, 15인분)는 3만7800원, 박스세트(800ml 10팩, 30인분)는 7만56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신송식품의 '신안바다 천일염'(5kg, 5000원)을 사은품으로 준다.

신림점은 15일, 삼계점은 22일까지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갯벌 천일염(3kg)을 공짜로 준다. 서초점은 30일까지 2회 이상 방문 멤버십 고객에게 천일염(3kg) 무료 증정 쿠폰을 문자로 보내주며, 신규 멤버십 가입 고객도 무료 증정한다.

서초점과 역삼점은 주말 가족 단위 방문 고객과 멤버십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소진 시까지 천일염(3kg)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출판그룹 길벗과 독서 붐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도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김후영의 '힐링 여행서적 유럽여행 핵심사전 500'과 하버드 정신과 의사 조셉 슈랜드가 말하는 분노 대처법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을 선물한다. /이지은기자

등산재킷 70% 싸고 구스다운 30% 저렴

아웃도어스, 쿠폰도 제공

패션 유통기업 (주)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아웃도어스는 12일 대대적인 쿠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웃도어스는 이날 단 하루 가을·겨울 시즌 의류 아이템을 최대 70% 할인하고, 30%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컬럼비아, EXR, 레드 캐스팅, 디두어, 스노우라인 등 등산·스포츠·골프 캠핑 등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컬럼비아의 경우 등산 재킷 이월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하고, 올해 신상 구스다운 재킷은 30% 할인 판매한다. 아크테릭스(Arc'Teryx), 몬츄라(Montura), 캐나다구스 등은 아웃도어스 단독 제품으로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날 하루에 한해 전 상품 무료 배송이 이뤄지며, 아웃도어스 바로 가기 접속 구매 시 3% 추가 할인한다. 이 밖에 1만9000~6만9000원까지 균일가 대전, 1만원 쿠폰 할인, 카드사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www.outdoors.com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료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중년층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 염증, 퇴행성관절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중년층 이상이라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이 대부분이다.

◆중장년층 무릎 통증의 원인 '퇴행성관절염', 말기엔 '인공관절'만이 해답

무릎관절의 연골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닳아 없어지게 된다.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해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없어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이런 증상을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라고 한다.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이 닳은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중기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또 말기에 이르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기며 무릎이 붓고 심지어 다리 모양까지 O자형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30%에게 발생할 정도로 주변에서 보기 쉬운 질환이지만 말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도 걷기 어려울 정도다. 더욱이 말기에는 연골이 모두 닳아버린 상태로 약물을 이용한 치료나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하기는 이미 늦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이란 모두 닳아버린 무릎 관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이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확보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는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최대 고민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만 시행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250만~300만 원이며 양측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약 500만원 정도가 든다. 또 수술 이후에 필요한 2~3주가량의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비와 간병비가 추가로 부담된다.

수술 전후에 필요한 검사 및 진료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600만~7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만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 관절염 환자에게 무료로 인공관절을 후원하는 '엄홍길휴먼재단'

이런 비용적인 문제로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아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통해 현재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무료로 인공관절 수술을 후원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 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본인 혹은 주변 지인, 보호자가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을 전화(02-2272-8849)로 신청하면 된다.

엄홍길(사진)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지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공연장을 통해 신청

이대병원 송태진 교수 '국제뇌졸중학회 젊은 연구자상'

송태진(사진)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교수가 내년 2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국제뇌졸중학회(ISC)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한다.

국제뇌졸중학회는 미국심장학회 및 미국뇌졸중학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뇌졸중과 관련된 최고 권위의 학회로 송 교수는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가진 급성 뇌경색증 환자에서 뇌내 미세출혈의 분포와 정도에 따른 장기 사망률의 차이란 논문을 통해 뛰어난 연구 업적을 보인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황재용기자

강동경희대병원 '잇몸 강좌'

강동경희대병원은 동화약품과 함께 진행하는 '2013 잇몸 건강 온몸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5일 병원 별관 강당에서 '잇몸지아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온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좌는 ▲알고 싶은 치과 궁금증 ▲스트레스와 잇몸 건강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황재용기자

metrosports

손흥민 "스위스 잡을 것"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국인 최초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세이셔널'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사진)이 스위스전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은 "오랜만에 골이 터졌다. 어쩌다 보니 전정팀을 상대로 운 좋게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전정팀에)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스위스와 러시아는 유럽의 강호들이다. 스위스전은 홈에서 경기를 펼치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12일 정오에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국가대표 훈련을 시작한다.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스위스전, 19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치르는 러시아와의 평가전에서 연속 골을 노린다. /장성훈기자

기성용 풀타임 팀 승리 기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기성용(24·선덜랜드)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의 정규리그 두 번째 승리에 힘을 보탰다.

기성용은 11일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기성용의 활약에 대해 평점 7점을 부여했다. /장성훈기자

심석희 월드컵 3관왕 한국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16·세화여고)·왼쪽)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1000m에서 우승하며 3관왕에 올랐다. /AFP 연합뉴스

빙속 삼총사 "소치★로 뜬다"

이승훈 5000m 한국신기록
모태범 500m 銀 '메달행진'
이상화 올림픽 2관왕 희망

밴쿠버 올림픽 3인방이 올림픽 2연패를 향해 쾌속 질주를 벌이고 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25)·모태범(24·이상 대한항공)·이상화(24·서울시청)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연일 신기록과 함께 메달을 수확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 시즌 첫 월드컵이다.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이승훈은 5000m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3년 만에 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훈은 11일 남자 5000m 디비전A(1부리그) 레이스에서 6분07초04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승훈의 기록은 2009년 12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월드컵 5차 대회에서 작성한 자신의 한국 기록(6분14초67)을 4년 만에 무려 7초63이나 앞당긴 성적이다.

왼쪽부터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은 스벤 크라머르(네덜란드·6분04초46)와 요리트 베르그스마(네덜란드·6분06초93)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남자 단거리의 간판스타인 모태범도 연속 메달 행진을 벌였다. 모태범은 이날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서 34초47의 기록으로 터커 프레드릭스(미국·34초46)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차 레이스에서도 2위(34초523)에 오른 모태범은 불과 0.01초 뒤져 금메달을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첫날보다 기록을 0.05초 줄였다는 데서 희망을 찾았다.

'빙속 여제' 이상화는 1000m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쳤지만 여자 500m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근 1000m 페이스가 오르고 있어 올림픽 2연패와 함께 멀티 메달 획득도 노려볼 만 하다. /장성윤기자 ssyw@metroseoul.co.kr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한화 FA대어 잡기 '강공 드라이브'

한화는 2013 스토브리그의 큰손이다. 좀처럼 꼴찌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한화는 이번 자유계약(FA) 시장을 전력 보강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에 쓰지 못한 류현진 자금을 모두 풀겠다는 생각이다. 과연 한화의 전력 보강은 성공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FA 신청자는 16명이다. 이 가운데 한화는 2명을 데려갈 수 있다. 한화의 눈은 최대어로 꼽히는 롯데 포수 강민호, KIA 외야수 이용규, 삼성 투수 장원삼, SK 내야수 정근우로 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조건 한 명을 영입할 생각이다.

한화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FA 시장의 또 다른 거품 요인이 될 듯하다. 한화가 돈가방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어급 FA 선수들의 몸값은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협상에서 주도권은 FA 선수들에게 있다. 모두 김주찬(50억원)을 훨씬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50억원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빅 4 선수들이 김주찬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기준선이 올라갔다. 선수들에게는 역대 최대의 잭팟을 터트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반대로 기존 구단들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거물급을 영입하든 실패하든 한화는 2013 FA 판도를 뒤흔드는 절대 변수다. /OSEN 야구전문기자

선택의 역설

박상전의 트렌드읽기

미 　 대학의 쉬나 아이엔거 교수는 미국 대형마트에서 잼 시식을 통해 구매 조사를 했다. A에는 6종류의 잼을, B에는 24종류의 잼을 놓고 실험에 들어갔다. 내방 고객 중 시식대 앞에서 발길을 멈춘 소비자는 A가 40%, B가 60%였다. 반면 구매율은 A가 30%, B가 3%였다. 선택의 다양성이 적은 A에서는 12명이 제품을 구매했지만 A보다 4배나 많은 제품을 갖췄던 B에서는 1.8명이 지갑을 여는 것에 그쳤다.

대졸자 취업이 대란에 빠져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3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3.5명이 직장을 얻었다. 취업 경쟁률은 대기업 31.3대 1, 중소기업 6대 1이었다. 2008년도 경쟁률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1.0명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2.4명이 줄어든 수치다. 전체적인 취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는 다욱 심화됐다는 얘기다.

심리학자 배리 슈워츠는 대학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구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경제학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결정은 어렵고 효용도 덜하다는 얘기다. 이 시대는 소위 '스펙'이란 말도 안 되는 명분하에 대학생에게 외국어 인턴, 다양한 자격증을 요구했다.

그 결과 대졸자는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됐다. 자연스레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향에서 자신을 검주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100명 중 취업에 실패한 96.5명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다양한 선택지에 막혀 이곳저곳으로 흩러 다니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또한 기업·사회·기성세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과를 전하고 싶다.

/ㄷ 디아씬컬리플러[www.dle.co.kr] 대표

날씨

11/12 火 해뜨는 시각 07:08 해지는 시각 17: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지역	기온
서울	-1/9
청주	-1/10
대전	-1/11
전주	-1/11
광주	2/11
제주	8/12
강릉	1/11
울릉도	5/8
대구	1/12
포항	2/11
울산	2/11
부산	4/13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이 약화돼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접촉 때문에 옮는 경우가 많으니 손을 자주 씻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전북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3			1		4			9
		6	7		3	6		
		5	2		9	1		
4		6				8		2
		1	8		6	3		
		2	6		1	4		
5			4		2			8
				7				

					5			
	3	9		2				
4	1	7		9				
	2		1				7	
1	9		3		4		5	8
	4				8		9	
				3		1	6	4
				4		5	8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믹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저작)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ttaui406.com

박사 마쳤지만 뭘 해야 할까요 교육·통역분야 2016년엔 성공

호도하자 여자 77년 12월 24일 음력 오전 7시

Q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공부에 크게 소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연히 교수가 되고는 싶지만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을 정해주시면 한눈팔지 않고 정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A 관(官)성이 약하면 세월의 기운을 더디 읽게 돼 비현실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연생을 헤쳐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또한 본목(本木)의 성향 때문에 나무가 곧바이 이르듯 향학심로 비관하기도 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통역과 인연이 있으니 훌륭한 미래로 목표를 이뤄내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부를 하다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세요. 2015년 지나면서 에너지가 충만해질 것이며 2016년에는 자기 성취를 이루게 되니 그때 다시 상담 신청하세요.

일부 업무 미숙해 해고될 위기 수모라 생각 말고 참고 견뎌야

궁월이 남자 69년 1월 29일 음력 오전 3~5시

Q 중소기업이라 맡고 있는 업무 영역이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험이 적은 분야에서는 미숙할 수밖에 없는데 경영진은 저를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어떤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이러다 해고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무작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을 신뢰하는 경영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심을 다해 자신의 부족한 업무 분야를 커버해 나가십시오. 남의 돈 받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백수로 놀며 지내는 것보다 회사에서 당분간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눈높이를 낮추고 궂은일이나 어려운 일 마다하지 말고 헌신하며 배우십시오. 회사에서 일을 못하면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수모라 생각하지 말고 약사발이라 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실성을 인정받아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잘나가던 사람도 갑자기 명예퇴직당하고 나면 알바닥 일이라도 어디 않고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12일(음 10월 10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마음 방황하는 곳에 독서 신경 써라. 60년생 이니를 가나 인기가 좋다. 72년생 상상만 하던 일이 이뤄져 흡족. 84년생 작은 희생이 큰 행운을 불러들인다.

소 49년생 속 썩이던 자손이 희소식 전한다. 61년생 버릇이 들렀을 때 더욱 침착할 것. 73년생 과욕 부린 일은 족쇄가 된다. 85년생 프러포즈 계획했다면 미뤄라.

호랑이 50년생 답답한 일은 독심을 명심하라. 62년생 눈물 나도록 예쁜 선물 받는다. 74년생 물장래에 떠나거나 유행하다. 86년생 작은 경사에 얼굴에 생기가 넘친다.

토끼 51년생 남의 일엔 침묵이 이롭다. 63년생 기다리면 소식 듣게 된다. 75년생 지속 반복하면 망치기 쉬운 돈다. 87년생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상사에게 감격.

용 52년생 자손에게 경사 있으니 기대하라. 64년생 뜻대로 되기 쉽지 않다. 76년생 목표 이루려면 칠전팔기 정신 필요. 88년생 연인의 냉담한 반응에 한숨이 난다.

뱀 53년생 귀한 분이 도움을 줄 수 있어 즐겁다. 65년생 박수 쏟아질 때 낮게 임하라. 77년생 물고기가 큰 강을 만난 격. 89년생 술자리는 아쉬움이 있을 때 떠나라.

말 42년생 언덕에 담겨도 절제할 것. 54년생 머뭇거리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66년생 현실성 없는 계획은 백지화하라. 78년생 역마살이 동하니 움직이는 게 좋다.

양 43년생 허둥 꿈면 자충만 늘어난다. 55년생 좋은 문서 들어오니 잡아라. 67년생 직장인은 엇던 성과로 고공 행진한다. 79년생 재물운이 열려 목돈이 생길 수도.

원숭이 44년생 떠난 버스는 빨리 잊어라. 56년생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처신하라. 68년생 불안한 금융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80년생 돈에 흔들리면 나중에 화를 친다.

닭 45년생 동쪽으로 가면 웃을 일이 생긴다. 57년생 생각의 균형을 잡는 데 신경 써라. 69년생 여유를 배우면 행복이 찾아온다. 81년생 대박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개 46년생 잃어버린 취미를 찾아라. 58년생 걱정했던 자금 문제는 적은다. 70년생 실패 가능성 염어두고 새 일을 할 것. 82년생 시대 흐름 읽는 안목이 빛을 본다.

돼지 47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겨 든든하다. 59년생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게 사람 마음. 71년생 돈이 궁하면 융통된다. 83년생 상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SINCE 1968

3년연속
교육역량우수대학 선정

새로운 시작의

중심

www.bwc.ac.kr

4년연속
전문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선정

부산·경남 최초 설립, 전통의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평가 A등급 선정

부산광역시 대학생취업역량강화사업 2년연속 선정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관지원사업 선정

모집학과

유아교육과(3년제) 아동복지보육과 유아영어지도과(3년제) 아동미술보육과(3년제) 아동음악과(3년제) 아동스포츠과 국제관광통역과 항공운항과(3년제) 호텔경영과 호텔카지노과 웨딩이벤트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커피바리스타과 호텔제과제빵과 간호과(3년제) 안경광학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보건행정과 병원전산관리과, 보건의료정보과 미용과 이미지헤어뷰티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 사회복지재활과 금융 고객서비스과 보석감정&디자인과

614-7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06(양정동)
Tel (051)852-0081~5 Fax (051)867-4705
입학문의 Tel. (051)850-3221~3 Fax (051)850-3224

도시철도1호선
양정역
2번 출구